

# 확 달라진 신형 K5 '올해의 차·디자인' 2관왕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제치고 1위 재규어 I-PACE '올해의 친환경' 21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가 선정한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기아자동차의 '신형 K5'가 선정됐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7일 파주 헤이리에서 올해의 차 후보 11대를 대상으로 실차테스트를 진행해 기아의 신형 K5가 총점 4948점으로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실차 테스트는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 안전, 경제성, 혁신성 등을 23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 항목별로 평가했다. 신형 K5에 이어 현대차 더 뉴 그랜저가 4744.5점으로 2위, 볼보차 더 뉴 S60이 4688점으로 3위에 올랐다.

지난해는 현대차(팔리세이드)와 기아차(K9)가 집안 싸움을 펼친 끝에 팔리세이드가 1위, K9이 2위에 올랐는데 올해는 기아차가 현대차를 꺾었다. 기아차는 2018년 스텔라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왕좌에 올랐다.

올해는 5위까지 국산차와 수입차가 모두 포진했는데, 5대 모두 세단이라는 점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졌다. 2019년 브랜드 최초 1만대 판매를 돌파한 볼보자동차와 화재 이슈를 딛고 재기의 성공한 BMW가 톱5에 진입했다는 것도 눈여겨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가 선정한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기아자동차의 '신형 K5'가 선정됐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중형 세단의 판도를 바꾼 신형 K5는 '올해의 디자인'에도 선정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사진제공 | 기아차

볼 점이다.

이밖에 '올해의 디자인'에 기아 신형 K5, '올해의 SUV'는 기아 셀토스, '올해의 친환경'은 재규어 I-PACE, '올해의 퍼포먼스'는 벤츠 AMG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가 각각 수상했다. 신형 K5는 '올해의 차'와 '올해의 디자인'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 ●4년 연속 '올해의 차'가 디자인까지 석권

2017년 SM6, 2018년 스텔라, 2019년 팔리세이드에 이어 2020년 신형 K5까지 '올해의 차'를 수상한 모델이 '올해의 디자인'까지 석권하는 트렌드가 4년째 이

어진 것이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의 상품성에서 디자인이 주는 심미적 요소가 점점 중요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국산차의 디자인 완성도가 수입차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 셀토스는 '올해의 차' 경쟁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올해의 SUV'에 뽑혀 주목받았다. 소형 SUV 세그먼트에 속하지만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의 친환경'에서는 재규어 I-PACE와 테슬라 모델3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

순위	차명(제조사)	점수
1위	신형 K5(기아차)	4948점
2위	더 뉴 그랜저(현대차)	4744.5점
3위	더 뉴 S60(볼보차)	4688점
4위	신형 쏘나타(현대차)	4656점
5위	뉴 8시리즈(BMW)	4561점

올해의 디자인	신형 K5(기아차)
올해의 SUV	셀토스(기아차)
올해의 친환경	I-PACE(재규어)
올해의 퍼포먼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벤츠 AMG)

지만 순수 전기차라는 친환경성에 재규어 고유의 파워풀한 스포츠 성능, SUV의 공간 활용성까지 두루 갖춘 I-PACE가 최종 낙점됐다.

'올해의 퍼포먼스'에서는 벤츠 AMG의 AMG GT 4도어 쿠페와 람보르기니 우루스, BMW 뉴 8시리즈가 3파전을 펼친 끝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춘 AMG GT 4도어 쿠페가 선정됐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013년 기아차 K9과 렉서스 뉴 ES,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2015년 인피니티 Q50, 2016년 현대차 아반떼, 2017년 르노삼성차 SM6, 2018년 기아차 스텔라, 2019년 현대차 팔리세이드를 그 해 '올해의 차'로 선정해 시상했다.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은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sereno@donga.com



### 볼스원 '엔진코팅제 블랙' 출시

볼스원이 엔진 관리 용품 '볼스원 엔진코팅제 블랙'을 출시했다. 엔진 내벽을 보호해주는 필수 차량관리 용품으로 유기 몰리브덴(AOMC)과 나노플러렌의 향상된 2중코팅 기술 및 에스터 100% 베이스 오일 사용으로 강력한 마모 방지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기 몰리브덴은 엔진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마찰 및 마모를 막아주는 특허 물질이다.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되는 3대 유해 성분인 염소계 파라핀, 테프론, 이황화몰리브덴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벤츠, 1월 개별소비세 인하 가격 적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새해맞이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31자로 종료한 개별소비세 인하 가격을 1월 한 달 동안 전 차종에 걸쳐 적용한다. 1월에는 같은 모델이라도 12월 31일 전에 통관된 차량과 이후 통관된 차량이 섞여 있어 통관일자에 따라 관장소비자가격이 다르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 1월에는 전 차종에 개별소비세 인하 가격을 적용해 판매한다.

원성열 기자

## 모델 최초 전륜구동...BMW '3세대 뉴 1시리즈' 공식 출시

전륜구동 채용으로 더 넓어진 실내 효율성·파워 향상...연비 14.3km/l

BMW 코리아가 3세대 BMW 뉴 1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 모델 최초로 전륜구동 방식을 채택해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BMW 특유의 '운전의 즐거움'도 갖추었다.

디자인을 보면 이전보다 더 균형감 있는 차체 비율과 날렵한 라인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륜구동 플랫폼을 채용한 덕분에 뒷좌석 무릎 공간은 33mm 더 넓어졌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좌우 공간도 각각 42mm, 13mm 늘어났다. 트렁크는 전 세대 대비 20리터 증가한 기본 380리터이며, 개별 폴딩이 가능한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1200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효율성과 파워도 향상됐다. 4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5.69kg·m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8.4초,

최고 속도는 214km/h, 복합 연비는 14.3km/l다.

경쾌한 성능을 위한 보조 기능도 추가됐다. BMW i3s에서 선보인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장치(ARB)를 BMW 내연기관 차량 최초로 적용해 빠르고 민감하게 휠 슬립을 제어한다. DSC와의 연계를 통해 전륜구동 차량의 특성인 언더스티어를 최대한 억제해준다.

가격은 뉴 118d 조이 퍼스트 에디션 4030만 원, 뉴 118d 스포츠 4280만 원, 뉴 118d



BMW 3세대 뉴 1시리즈

M 스포츠 4640만 원, BMW 샵 온라인에서 한정 판매되는 뉴 118d 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4940만 원이다(VAT 포함). 원성열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 목에 걸어 착용하는 의료기기 LOBAC M6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

목걸이용 LOBAC M6, 손목용 LOBAC LH, 허리용 LOBAC LP3

2020년 로바엠6 목걸이용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최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로바엠6 목걸이용'이 출시되었다. 이 목걸이용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료기 품목허가 제04-784호)다.

알루미늄 판에 아노다이징 처리한 로바엠은 가벼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로바엠6 목걸이용의 신상품

LOBACM1, M2 출시된 가운데 주식회사 나라컴퍼니 대표 펜던트에 4가지 색상을 넣어 상품 디자인에 다양성을 더했다. "기존 로바엠6 목걸이용 펜던트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면서

문의 070-4914-5205 (www.lobac.or.kr)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